

# 朝鮮前期 粉靑과

## 象嵌白磁에 관한 研究

— 文樣과 器形을 中心으로 —

金 英 媛

### 一、序 言

頽落한 象嵌靑磁을 母胎로 한 粉靑의 始發點이 되는 時期인 麗末은 政治·經濟·社會 全盤에 걸쳐 舊귀족이 몰락하고 新進士大夫계층에 의해 많은 改革이 이루어지는 變化期이다. 이 以前까지만해도 全羅道地方의 各마을 中心으로 하여 靑磁을 구워냈던 陶工들은, 一二世紀末頃부터 全國도처에서 일어났던 民亂 등 下剋上의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① 全國各地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日常的인 小形의 陶磁器를 만들게 되어 새로운 樣相의 粗質 陶磁器가 생겨났다②. 이러한 經濟·社會的인 背景 위에 政治的으로 地方出身의 士大夫의 등장이 합하여지고 그들의 청렴·결백·素朴한 서민적인 취향이 當時 陶磁器의 장식意匠에 가미되어 粉靑이라는 類型을 형성하기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즈음 對外的으로 中國에서는 元·明이 交替되면서 一四世紀初부터 江西의 景德鎮이 점차 중요한 窯로 대두하여 全盤的인 陶磁器제작의 추세가 靑磁에서 白磁로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變化가 일어나서 以前에는 찾아볼 수 없던 硬質의 白磁가 만들어진다. 즉, 灰白色의 素地에 미량의 鐵分이 포함된 釉藥이 입혀진 靑磁로부터 불순물이 제거되어 白色을 띠는 素地에 鐵分 또한 거의 제거된 透明한 白色의 白磁釉로 이행한 陶

磁器製作技術의 발달과정에서 당연히 밟아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③.

이와 같은 中國에서의 추세는, 우리나라에까지 波及되어 고려靑磁로부터 朝鮮白磁로 옮겨가게 된 原動力이 되었을 뿐 아니라, 朝鮮前期 白磁의 器形·文樣 등에 部分的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對內·對外的인 複合樣相은 朝鮮前期 陶磁器를 크게 ① 粉靑과 象嵌白磁를 주로 한 고려 陶磁系列 ② 鐵繪白磁와 靑華白磁를 주로 한 元·明初 白磁系列로 二分해 주고 있다.

고려 陶磁系列에 포함되는 粉靑은, 時期的으로나 陶磁樣式的인 側面에서나 고려靑磁에서 壬亂後 大宗을 이루는 朝鮮白磁 사이의 過渡期的인 產物로서 매우 독특한 樣式을 지니고 있다. 즉, 靑磁와 同一한 灰色내지는 더욱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로 白磁胎土로 한 발자욱 다가선, 灰白色의 素地에 淡灰靑色의 透明釉로 입혀져 있어 비취색의 靑磁釉보다 우선 鐵分의 함유량이 줄어들어 한단계 진전된 樣相이며④, 文樣 및 器形에 있어서 前代의 靑磁的인 要素는 물론 當代나 다음 代의 白磁에까지 그 특징을 남기고 있어서 한마디로 靑磁와 白磁의 混合型式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逆으로 말하면, 朝鮮前期의 白磁는 外部로부터 새로이 들어온 元·明初의 영향 외에도 同時代의 粉靑의 영향을 強하게 받았는바, 여러 例들의 比較·分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朝鮮建國에서 壬亂以前까지의 15, 16世紀를 朝鮮前期로 잡아 이 시기의 粉靑과 白磁 — 특히 一五世紀의 象嵌白磁 — 를 주로 文樣, 構圖, 그리고 器形의 側面에서 相互 比較·分析하고 中國 元·明初 白磁와의 관계를 部分的으로나마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角度에서 當時의 陶磁樣式의 이해를 돕도록 하며 그들이 차지하는 陶磁史的인 位置를 再照明하고자 한다.

### 二、朝鮮前期陶磁와 元·明初 陶磁와의 關係

前章에서 類型分類한 高麗陶磁系列에 속하는 粉靑과 象嵌白磁는 器形

과장식 意匠에 있어 部分的으로 元・明初陶磁器의 要素를 지니고 있으며, 전적으로 元・明初의 새로운 陶磁樣式을 토대로 하여 생겨난 것은 靑華白磁이고, 다시 그 靑華白磁와 粉靑 그리고 象嵌白磁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은 것이 鐵繪白磁이다. 따라서 朝鮮前期의 陶磁全盤에 걸쳐 나타난 中國陶磁器의 要素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朝鮮前期의 粉靑이 여러 면에서 靑磁의인 要素를 지니고 있음에 對해선 이미 많은 論文이 發表되었으므로⑤ 그에 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키로 한다. 靑磁에서 비롯된 粉靑은 當時 수요자들의 감각에 부응하기 위한 樣式을 갖춘 反面, 元代 磁州窯製品の 樣式的인 특징과 景德鎮窯의 白磁나 龍泉窯의 靑磁에 나타난 意匠上의 새로운 특징들과도 관련되어 本章에선 그러한 部分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粉靑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그릇의 用途에 있어 靑磁와는 뚜렷이 區分되는 點이 있다. 귀족의 일상품으로서의 靑磁에 비해, 粉靑은 다소 거칠고 투박한 陶磁器로서 實生活容器인 것이다. 그 예로서 盒이나 油瓶같은 小形의 化粧容器類나 文人들의 愛用品으로 靑磁와 白磁에서 同一하게 發見되는 硯滴類도 本格的인 粉靑에선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大形의 胎壺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더우기 陶工에 의해 이루어진 活潑한 장식 意匠이나 생략되고 吳字로 쓰여진 銘文들은 機能爲主의 生活用品이었던 粉靑의 소박·활달한 性格을 드러내 준다. 이와같은 그릇의 실용성을 생각한 大形化경향은 中國 磁州窯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났는바, 宋磁의 세련되고 우아함은 元 後期로 들어가면서 사라지게 되고, 다소 거칠고 자연스러운 陶工의 취향이 表現된 例들이 점차 증가하였다⑥. 陶磁器의 大形化는 元代 以前 이미 遼의 陶磁器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이며 이것은 大形食器를 使用한 支配民族의 食習慣이 日常生活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으로⑦ 바로 元代 磁州窯의 大形化현상을 조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元代 磁州窯의 또다른 특징은 종래의 자유롭게 施文하는 방식 外에 器面을 몇개의 帶狀으로 區劃·施文하는 방식인데, 末期의 高麗靑磁에서도 이와같은 방식이 나타나며 朝鮮朝 粉靑에까지 지속되고 있음

을 여러 例를 통해 살필 수 있다. 한편, 粉靑의 특징 중 銘文例가 숫적으로 많이졌음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개 觀音銘과 一部分의 陶工銘이 主流를 이룬다. 이때 銘文의 위치는 內底圓 中央의 圓圈 內에 表示되거나 內底圓 內부에 縱으로 또는 橫으로 表示되기도 하며 外側面에 돌아가며 圓圈 內에 한자씩 配置되기도 하는데, 全盛期의 例들을 보면, 器內底에 陶工名을 線刻하기도 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圓圈 內에 記入된 銘文의 例는 元代의 磁州窯에서도 多量으로 나타나는 것⑧과 同一한 추세인 것이다. 물론 內容에 있어서 元代 磁州窯에선 詩, 상서로운 말, 칭찬·추천의 말인 점은 우리의 粉靑과는 區別된다. 아무튼 銘文 表現의 形式이 粉靑과 유사함을 보이던 元代 磁州窯는 明代로 들어가면서 皇室의 후원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 원래 民窯로 출발했던 것이 궁중의 후원으로 많은 御用之器를 제작하게 된다⑨. 이와같은 궁중후원의 경향은 靑華白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서 永樂朝以來로 그릇에 王朝를 表示하게 되어, 中央공공용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銘文의 뒤에 깔려있는 意味도 粉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粉靑의 基調를 이루는 白土粉粧技法 또한 磁州窯의 기본적인 장식의장임은 周知하는 바이다⑩.

磁州窯의 技法이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 왔는지, 주변국가들 경우하여 樣式上의 變化를 겪으면서 流入되었는지는 확실하 알 수 없으나 그 전과경로에 대한 규명은 追後的 研究發表에 기대키로 하고, 우선은 어느 정도 樣式的인 관계를 類推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例證으로 粉靑鐵繪文과의 樣式的인 比較를 試圖해 볼 수 있다. 매우 繪畫的인 性格을 띠는 磁州窯의 鐵繪文은 中國의 水墨畫技法을 처음으로 陶磁에 사용하여 成功시킨 例로서⑪ 그 樣相에 따라 線描만으로 이루어진 것과 沒骨法으로 된 것으로 二分할 수 있는데, 前者는 細密하고 다소 복잡한 構成을 보여 매우 장식성이 높으며 景德鎮窯 靑華白磁의 文樣에 유사하다. 反面에 後者は 다소 거칠고 활달한 筆致를 보여주며, 한편 稚拙한 面을 띠는데, 素材는 주로 抽象化·圖案化된 草文내지는 鳥文(鶴

文)이다. 바로 이 抽象化 또는 圖案化된 鐵繪文이 우리의 粉靑鐵繪文과 同一한 形式을 보여준다. 時期的으로는 中國에서 靑華白磁가 磁州窯의 鐵繪文에게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以前의 元代 磁州窯에 더 가까운 형식임을 여러 例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sup>⑫</sup>.

이와같은 粉靑과 磁州窯와의 관계 外에도, 前期의 粉靑과 象嵌白磁의 文樣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主要素材는 蓮唐草文(또는 折枝文)과 牡丹唐草文(또는 折枝文)이며, 이들은 元後半期の 陶磁文樣과 直結된다. 元代陶磁의 文樣과 比較에 앞서 粉靑과 象嵌白磁의 蓮花·牡丹文을 類型別로 區分하면,

1. 麗末 象嵌靑磁의 文樣을 그대로 따오거나 變形시킨 樣式으로

① 줄기가 세로로 곧게 선 折枝文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稚拙하나 비교적 사실적인 면이 남아 있는 것(圖 1~5)

② 唐草文의 變形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줄기며 꽃이 原形을 잃고 완전히 分解·再構成되어 器面에 가득히 配置된 것(圖 6·7)

2. 中國 元·明初의 典型的인 文樣으로 그 樣式에 따라

① 唐草文의 덩쿨이 리드미컬하게 그릇을 돌아가며 配置된 것으로 다소 樣式化의 경향을 띠는 것(圖 8~22)

② 많은 여백을 남긴 채 折枝文만 간략하게 施文된 것(圖 23~28)

以上の 樣式분류 중 2의 內容이 바로 元·明初 景德鎮이나 龍泉에서 많이 나타나는 文樣인 바, 1의 文樣에 대해선 粉靑과 白磁의 比較部分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2의 類型에 속하는 蓮唐草·牡丹唐草文과 的 比較를 試圖하고자 한다. 이중 1과 2의 折枝文은 각기 그 形式이 다른데 象嵌靑磁系列에선 거의 垂直으로 놓인 蓮花文이나 牡丹文에 반해 元陶磁에서는 가운데 놓인 花文을 中心으로 하여 左右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특징적인 形式으로 우리의 것과는 뚜렷이 區別된다.

먼저, 樣式化된 蓮唐草文이나 牡丹唐草文의 덩쿨진 唐草文이 거의 圓形을 이루며 그릇을 돌아가면서 配置된 例를 보면, 고려末 象嵌靑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以後 朝鮮前期의 粉靑과 象嵌白磁에까지 지

속된다<sup>⑬</sup>. 고려後期の 例로서 靑磁象嵌蓮唐草文瓶(圖 10)과 이보다는

약간 세련된 맛을 주는 靑磁象嵌辰砂蓮唐草文瓶(圖 9)이 있고, 朝鮮前期의 例로는 日本 安宅 Collection의 粉靑刻地鐵彩牡丹唐草文瓶(圖 11) 그리고 釜山市立博物館의 白磁象嵌蓮唐草文瓶(圖 17) 등이 있다.(圖 11~19) 이들은 모든 主文樣帶 안에 稚拙한 蓮唐草文을 울동감있게 配置하여 圖案意匠化된 元陶磁의 文樣감각에 一致된다. 여기서 看取되는

樣式的인 특징은 대개 元의 「玉壺春」瓶은 肩部·胴部·底部에 각각 文樣帶가 있어 모두 三段의 構成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粉靑이나 象嵌白磁에서는 元陶磁에 施文되었던 肩部의 唐草文이나 底部의 蓮瓣文 등의 여러 부수적인 文樣이 생략되어 거의가 胴部에 主文樣帶 하나만을 두거나 肩部에 보조文樣帶를 추가하기도 하여 여백을 많이 남긴

가운데 文樣 자체도 계속 抽象化·稚拙化되어가는 樣相을 띤다. 그런데 象嵌白磁의 경우는 더욱 간결하게 요점적으로 表現하여 대개 主文樣인 唐草文만을 施文하였다. 그리고 細部表現에는 粉靑의 手法이 도입되어 花瓣內에 點文이나 短線文을 象嵌한 것이 대부분이다.(圖 17·18)

이상과 같은 경향은 折枝文의 例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尹章燮소장의 白磁象嵌文瓶(圖 28)에서도 간과된다. 肩部에 波狀形의 唐草文, 그 아래

에는 아무 區劃線도 없이 넓은 空間에 대담하게 變形된 牡丹文을 線象 嵌한 二段의 文樣構成이라든지, 左右로 날개처럼 뻗어올라간 折枝의 抽象的인 면서도 元陶磁의 특징적인 表現形式을 취한 點이 그러하며 기본적으로 Metropolitan Museum의 釉裏紅瓶과 通한다.(圖 23)

中國陶磁의 文樣要素는 앞서 소개한 瓶類 外에 國立中央博物館所藏의 白磁象嵌대접들과 壺類 그리고 粉靑에선 梅瓶 등에서 보여진다.(圖 14·15·18·19) 이들 중 舊東垣기종품인 白磁대접 二例를 살펴보면

한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단정한 曲線을 지닌 器形에 乳白色釉를 입힌 軟質胎土의 대접인데 세련된 筆致의 樣式化된 元陶磁樣式과 同一한 蓮唐草文이 대접 外側中央의 文樣帶에 施文되었다. 이 蓮花瓣文의 形式은 景德鎮窯出土의 元代靑華白磁(圖 19)의 그것과 同一하여, 고려白磁

系의 軟質이라 할지라도 文樣에 있어선 中國要素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다른 한점은 灰白色의 硬質胎土에 淡灰色釉를 입힌 白磁대접으로 이 당시 朝鮮前期 白磁象嵌文 특유의 매우 유치한 手法으로 이루어진 극도로 樣式化된 唐草文이 施文되었다.(圖 20) 이로써 象嵌白磁에 선 軟質과 硬質에 다함께 圖案意匠化된 唐草文이 나타남이 확인된다.

그런데 景德鎮陶磁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 주는 예는 湖巖美術館의 白磁象嵌瓶(圖 21)으로 특별히 面象嵌한 手法이나 蓮花瓣의 끝이 뾰족한 曲線을 그리는 樣式은 中國 靑華白磁에 나타난 蓮花文과 同一한 효과를 낸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朝鮮前期의 粉靑과 象嵌白磁은 靑華白磁의 대유행시기였던 明代보다는 그 토대를 이룬 元陶磁의 투박하고 거친 手法과 유사한 文樣과 기본적인 構圖 등에서 더욱 긴밀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음을 여러 예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여기에 一部の 明初陶磁의 영향도 가미된다. 우리 陶磁에 나타난 元陶磁의 要素는 실상 고려後期の 象嵌靑磁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더우기 宋以來로 磁州窯와 景德鎮窯의 陶磁가 함께 盛行했던 元代는 粉靑과 白磁의 併存時期였던 朝鮮前期와 유사한 陶磁樣相을 지닌다.

### 三、朝鮮前期 粉靑과 象嵌白磁의 관계

前章에서 粉靑에 나타난 磁州窯系統의 장식意匠技法, 그리고 粉靑과 象嵌白磁의 文樣을 元과 明初陶磁의 그것과 연결시켜 比較해 보았다. 기본적인 構圖나 문양, 기형에 나타난 外來要素 外에도 同時代의 粉靑과 白磁 사이의 相互 영향관계가 뚜렷이 浮上되고 있다.

그러한 관계는 粉靑의 독특한 意匠인 剝地鐵彩技法의 예로(圖 37)부더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粉靑의 素地에 白土粉粧한 뒤 文樣 外의 部分을 긁어내고 鐵彩를 加한 것으로서 文樣의 白土와 바탕의 鐵彩의 發色인 흑갈색의 對比效果를 추구한 技法인데, 白磁에서 바로 이 技法을

시도했다고 생각되는 鐵彩剝地技法에 依한 대접이(圖 38) 있어 注目된다. 이 白磁대접은 現在 湖巖미술관에 진열 중인데 外側面 中央에 위치한 文樣帶를 鐵彩한 後 部分的으로 긁어내어 七寶文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粉靑의 粉粧한 白土 대신 白磁 자체의 白色을 이용하여 鐵彩의 흑갈색과의 對照效果를 피한 白磁 중에선 매우 독특한 장식意匠이며 當時의 白磁에서는 類例를 찾기 힘든 것으로서 粉靑의 剝地鐵彩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 (1) 粉靑과 象嵌白磁의 비교

粉靑과 象嵌白磁의 相互 영향관계는 粉靑鐵繪文과 白磁象嵌文의 比較를 통해서 추적가능하다. 매우 생략적이고 抽象的인 表現을 위주로 한 粉靑鐵繪文의 樣式은 細分하여 두가지로 된다. 그 하나는, 粉靑象嵌文(圖 45) 文樣 一部를 본따서 비교적 사실적인 面이 남아있는 樣式(圖 46)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히 抽象的으로 變形시켜 매우 간단하게 表現된 양식(圖 47)이다. 兩者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문양의 중요한 部分만을 따서 요점적으로 그리고 抽象的인 表現을 추구했다는 點이다. 이러한 경향은 白磁象嵌「鄭氏」墓誌(一四六六)와 同伴한 白磁扁瓶(圖 36)이나 白磁象嵌「太一殿」銘蓋(一四七六以前)(圖 33)에서와 같은 생략적이고 稚拙한 手法의 草文이나 前者의 白磁扁瓶이 지닌 특이한 圓形構圖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成化二十三年」銘(一四八七), 「弘治三年」銘(一四九〇), 그리고 「弘治十四年」銘(一五〇一)의 墓誌로 미루어 본 鐵繪粉靑의 전성기인 一五世紀 四·四分기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象嵌白磁에서의 간략화·추상화의 추세가 조금 늦게 전성기를 맞이하는 鐵繪粉靑에 바로 이어짐을 앞의 編年資料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鐵繪粉靑과의 관계 外에도 粉靑彫花文·剝地文·印花文과도 밀접함을 엿볼 수 있는 예로 國立中央博物館소장의 白磁象嵌樹枝文瓶(圖 34)(東垣기증)이 있다. 이 瓶은 소위 「玉壺春」瓶形式으로 肩部에서 底部까지

의 넓은 면에 하나의 主文樣帶를 두고 그 안에 樹枝文을 黑象嵌하였다. 이 樹枝文 안에는 小菊文이 가득 印花되었는데, 이것은 두말 할 것 없이 粉靑印花文의 영향이다. 앞서 소개한 바 있는 象嵌白磁의 編年資料가 一四六六, 六七, 七六年頃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이때는 印花粉靑의 全盛期(一五世紀三·四分期)로서 이 象嵌樹枝文의 白磁에 印花粉靑의 要素가 도입되었음은 매우 당연한 結果인 것이다. 그리고 줄기의 형태는 地面을 의미하는 底部에서 두 줄기로 시작되어 끝이 다섯으로 갈라졌는데, 이러한 줄기의 형식은 粉靑彫花文, 剝地文의 여러 예에 단독문양으로 나타난 樹枝文의 형식과 연결되며(圖 30, 31) 安宅 Collection의 白磁象嵌蓮花文瓶의 葉文(圖 3)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보다 시대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는 尹章變소장의 粉靑象嵌牡丹楊柳文瓶(圖 6)의 抽象的으로 分解된 唐草文에서 一部를 따온 形式임을 文樣比較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또 安宅 Collection의 粉靑面象嵌牡丹文瓶(圖 29)의 牡丹唐草文도 두 줄기가 교차되는 모습이며 前章에서 소개한 바 있는 尹章變소장 白磁象嵌牡丹文瓶(圖 28)의 左右로 벌어올라간 두 줄기도 粉靑草文의 연속임을 알 수 있다. 粉靑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일련의 樣式이 一部 象嵌白磁에 수용된 것이며 「太一殿」銘白磁蓋에도 그와 유사한 草文이고, 國博소장의 어떤 예에선 매우 특이한 文樣(圖 35)으로까지 變貌되었다.

二章에서 樣式분류한 蓮唐草文이나 牡丹唐草文 또한 粉靑과 象嵌白磁가 共通의 범주 안에 속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중 元代 陶磁器의 圖案意匠化된 文樣에 유사한 樣相을 보이는 예에 대해선 이미 살펴보았으니 ⑭ 여기서 그중 靑磁系列로 區分한 文樣에 限해 살펴보고자 한다.

麗末鮮初의 頽落한 靑磁와 粉靑의 中間의인 類型에 속하는 陶磁器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 文樣은 柳文과 함께 施文된 蓮花文이고 여기에 魚文이나 波濤文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것은 一五世紀의 象嵌粉靑에서 계속 나타나는 素材인데, 짐차 魚文의 크기가 커지거나 따로 떨어져 나가 독립된 문양으로 대담하게 表現되어 粉靑彫花文의 많은 예에서 단독文

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魚文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粉靑象嵌蓮柳文扁瓶(圖 5) 등에 施文된 蓮花文은 매우 稚拙하나 다소 寫實的인 面을 남기고 있는데, 魚文이나 蓮花文은 다른 文樣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白磁象嵌蓮魚文항아리(圖 4)에선 柳文, 波文, 蓮瓣文 등의 부수적인 文樣은 완전히 생략되고 곧은 줄기의 蓮花文과 魚文만을 따서 配置하였다. 이와 더불어 安宅 Collection의 白磁象嵌蓮花文瓶에도 圖案化된 蓮花文만 간단히 施文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前述의 象嵌白磁 例들에서와 같이 文樣의 간결한 表現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 粉靑과 象嵌白磁의 樣式變化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부연하면, 粉靑象嵌文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樣式化·抽象化의 경향은 鐵繪文 以前の 彫花·剝地文에서도 이미 완전히 抽象化된 例가 등장하게 되며(圖 48) 어떤 것은 一部만 크게 확대하여 대담하게 施文된 例도 있다 ⑮. 象嵌白磁에서는 여기에 印花文까지를 포함한 粉靑의 모든 樣相이 分解·再構成된 文樣, 다소 硬直되고 稚拙한 手法의 文樣, 그리고 생략적이고 抽象化된 文樣이 一다 나타나서 粉靑과 象嵌白磁는 하나의 群을 形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彫花·剝地文에서부터 이미 文樣의 抽象化·樣式化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⑯ 鐵繪粉靑이나 一部의 象嵌白磁에서 發見되는 樣相의 前兆가 된다. 아무튼 象嵌粉靑과 彫花·剝地粉靑 그리고 象嵌白磁의 文樣樣式은 鐵繪粉靑으로 이행하고 이것은 다시 一七世紀의 白粉鐵繪文의 樣式으로 變해간다고 史料된다.

文樣의 樣式뿐 아니라 器形에 있어서도 粉靑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白磁의 例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一五·一六世紀의 粉靑에서 독특한 一群을 形成하는 器形은 胴部中央이 불룩하고 上·下部로 가면서 오무라드는 항아리이며, 年代推定이 가

능한 예는 溫寧君墓出土 粉靑귀얇항아리 二點이다(一四五四年)。 이러한 器形은 當時의 白磁에서도 發見되는데, 기형과 더불어 文樣·構圖·施文技法에 있어 粉靑의인 要素가 현저한 例로 國博소장의 白磁象嵌繩廉文壺(圖 42)가 注目된다. 肩部에 一條의 커다란 菊花文을 押印하고 그 아래로 불룩한 腹部에 이르는 主文樣帶를 繩廉文으로 장식하고 각각 赭土를 嵌入한 施文手法이라든지 文樣의 配置와 그 素材 등은 胎土와 釉藥이 白磁일 뿐 모두 粉靑과 同一類型을 이루고 있다. 이 壺는 硬質胎土에 深靑色을 띠는 釉가 입혀진 廣州 官窯製品으로서 이를 通해 官窯 產象嵌白磁에도 粉靑의 文樣要素 및 技法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粉靑과 象嵌白磁에서 同時에 나타나는 기형은, 앞의 腹部가 불룩한 항아리 외에도 肩部가 잘룩하고 胴部가 球形에 가까운 소위 玉壺春瓶, 圓形의 上面이 편편하고 몸통의 윤두가 높은 자라병, (圖 49·50) 前後面이 圓形을 이루고 側面이 납작한 扁瓶(圖 51·52) 등이 — 비록 細部手法의 차이를 나타내긴 하지만 — 있다. 一五, 一六世紀의 靑華白磁나 鐵繪白磁 중에는 口部가 나팔처럼 벌어진 소위 「玉壺春」瓶이나 梅瓶과 같은 고려靑磁의 脈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나, 朝鮮朝 粉靑에서 새로이 등장한 扁瓶이라든지 장군, 口緣이 外反하고 목이 짧고 肩部가 팽만한 月山君의 胎壺와 같은 기형, 그리고 溫寧君墓出土의 腹部가 불룩한 항아리의 형태 등이 계속됨을 여러 例를 通해 살필 수 있었다. 특히 溫寧君墓出土의 항아리 형태는 一五, 一六世紀의 粉靑과 象嵌白磁에서 연속적인 流行을 맞게 되고 다시 一七世紀의 鐵繪白磁항아리(圖 44)의 형태에 이른다.

以上과 같은 粉靑과 象嵌白磁의 有關함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全北高敞郡 富安面 水東里 第三窯址의 蒐集品인데, 이 一帶의 第一, 第二, 第三窯址로 옮겨오는 동안에 初期白磁에 粉靑의 印花文이나 「內瞻」銘, 「禮賓」銘 등이 押印된 陶片이 다수 發見되어 白磁에 粉靑의 要素가 流入된 過程을 생생히 살필 수 있다(17).

## (2) 鐵繪·靑華白磁와의 관계

朝鮮前期의 白磁에서 粉靑과 많은 共通部分을 지녀 比較가능한 것은 象嵌白磁이며, 특히 一部分의 鐵繪白磁와도 文樣面에서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靑華白磁는 전혀 다른 樣相을 지녀 이 시기의 白磁를 크게 두 系列로 區分해 주고 있다.

象嵌白磁는 胎胎에 있어 이른바 고려白磁系의 軟質과 中國 元白磁系의 硬質로 區分되지만, 鐵繪白磁나 靑華白磁에선 軟質이 전혀 없어 같은 白磁이긴 하나 처음부터 다른 系列의 胎胎를 지니고 있음이 注目된다. 그런데 鐵繪白磁에선 硬質胎土 위에 乳白色의 釉藥이 입혀진 例도 있어 胎胎에 있어서도 複合的인 성격을 드러내 준다.(圖 53)

一五, 一六世紀의 靑華白磁는 器形에 있어서 同時期의 粉靑과 類似한 例가 發見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中國의 靑華白磁를 母胎로 하여 제작되었으므로 初期의 靑華白磁는 文樣과 그 構成에 있어 象嵌白磁와는 달리 粉靑의인 특징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매우 中극적인 意匠을 지닌다.(圖 56) 그러다 차차 많은 亞백을 살리면서 器面을 하나의 畫面으로 생각하고 施文하는 매우 繪畫的인 意匠으로 바뀌게 된다(18). 그리고 施文手法에 있어선 粉靑 또는 象嵌白磁의 文樣처럼 陶工에 의한 거친 手法이 아니라 畫員이 그렸다고 생각되는 매우 노련한 솜씨를 보여 준다. 그러나 기형에 있어서는 當時에 盛行하던 粉靑의 영향이 컸을 例가 나타나는데, 一 例를 들면, 粉靑 全盛期의 특징적인 壺의 형태였던 月山君胎壺(圖 56)와 그에 유사한 일련의 例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注目되는 點은 中國 元·明初의 기형을 담은 공은 口部의 壺라든지 예리하게 角이진 전접시 등의 새로운 形態가 나타나면서 고려靑磁나 粉靑의 특징적인 기형이었던 梅瓶, 「玉壺春」瓶, 윤두가 낮고 口緣內灣한 내접이나 윤두가 높고 口部가 垂直이며 胴下部가 斜面을 이룬 내접 등은 전혀 發見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文樣에 있어 粉靑의인 手法과 함께 靑華白磁에 편차할만한 세련된 手法을 엿볼 수 있는 것이 鐵繪白磁인데 國博소장의

白磁鐵繪梅竹文壺(圖 53)의 梅竹文은 當時 靑華白磁에서처럼 노련한 솜씨를 보여준다. 이러한 靑華白磁의 要素와 더불어 粉靑鐵繪文과도 연결되는 것이 바로 鐵繪白磁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粉靑과 象嵌白磁에 나타난 草文(또는 樹枝文)과 同一한 形式을 지닌 一五世紀 鐵繪白磁의 例로 胎土비집에 竹節을 갖은 대접(圖 54)이 있다. 이 대접의 外側面에는 底部의 굽주림에서부터 두 줄기의 草文이 左右로 갈라진 鐵繪文이 있는데, 끝부분이 여러갈래로 갈라진 모습으로 當時의 粉靑과 象嵌白磁의 영향을 깊게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一五, 一六世紀의 鐵繪白磁는 대개 세련된 畫員의 솜씨라는 點에선 靑華白磁와 同一하지만, 풍부한 안료가 보장된 鐵繪白磁의 경우는 많은 地方窯에서도 播造되었고 陶工들의 거칠은 솜씨가 그대로 表現되었다. 이러한 地方窯제품의 鐵繪白磁는 대개 一七世紀의 제품으로 前述한 대접의 문양과 유사한 抽象화된 文樣이 대부분으로 粉靑이나 象嵌白磁의 연속이라고 생각된다. 그중에 시기적으로나 樣式面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한 粉靑鐵繪文이며, 이에 대한 背景으로 계룡산기슭의 窯址에서 鐵繪白磁와 鐵繪粉靑의 陶片이 同伴出土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니까 鐵繪白磁는 文樣에 있어서 두 유형이 있는 바, 하나는 靑華白磁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粉靑이나 象嵌白磁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고, 이러한 樣相은 器形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여서 靑華白磁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가 하면, 粉靑과 유사한 형태의 두 系統이 있어, 大分히 混合類型을 이루고 있다.

## 結 論

지금까지 朝鮮前期 粉靑과 象嵌白磁의 研究에 있어 同時代의 靑華白磁나 鐵繪白磁의 관계 및 中國 元·明初陶磁와의 關係를 部分的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서 얻어지는 結論을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朝鮮前期의 陶磁全盤에 걸쳐 나타나는 文樣上의 특징은 粉靑象嵌文· 彫花文· 剝地文 그리고 白磁象嵌文에 모두 共通되는 一定한 기본적인 패턴이 있음이다. 이들을 樣式分類하면, ① 末期靑磁의 文樣 ② 元·明初陶磁의 文樣要素를 지닌 文樣으로 大別되는데, 이러한 一定한 양식이 간략화· 抽象化의 경향을 띠며 象嵌粉靑에서 鐵繪粉靑 그리고 象嵌白磁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 變形되어 同一하게 나타난다.

(2) 이와같이 象嵌白磁는 官窯産이나 地方窯産이나 할 것 없이 文樣構圖 등에 있어 粉靑과 그 기본적인 樣式을 같이 하고 있다.

(3) 粉靑· 象嵌白磁와 전혀 다른 樣式的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 靑華白磁이다. 粉靑과 象嵌白磁의 文樣은 陶工에 의해 施文된 서투르고 투박한 文樣이고 특히 象嵌白磁에선 대개 한두가지 素材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간략한 表現方式을 취하였다. 反面에 靑華白磁는 畫員에 의해 施文된 세련된 手法과 構造를 보이는 文樣으로 寫實的· 繪畫的인 韓國화된 文樣을 지닌다. 한편, 이 兩者의 특징을 두루 지닌 중간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이 鐵繪白磁이다.

(4) 朝鮮前期陶磁의 器形은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 ① 梅瓶· 은두가 낮고 口緣이 灣曲한 대접이나 은두가 높고 口部가 垂直인 대접, 「玉壺春」瓶 등의 고려靑磁에서 유래한 기형
- ② 자라병, 여러가지 形의 扁瓶, 장군, 腹部가 불룩하고 그 上· 下面이 斜面을 이루는 壺(圖 39~43), 口緣이 外反되고 肩部가 평탄한 전형적인 粉靑壺의 형태 등 朝鮮朝에 들어서서 粉靑에 새로이 나타난 기형

③ 靑華白磁에 보이는 예리하게 角진 전접시, 단정한 外反口緣을 갖은 대접, 口部가 直立한 壺類 등 元·明初陶磁를 모방한 기형

이중 ①, ②의 기형 그리고 ③에서 일부 기형이 粉靑과 象嵌白

磁에 나타난다.

(5) 胎土에 있어서 象嵌白磁는 軟質과 硬質이 함께 發見되고 있는바, 軟質胎土에는 미세한 氷裂이 있는 乳白色의 釉가 입혀지고, 灰白色의 硬質胎土에는 淡青色내지는 灰青色을 띤 透明한 釉가 입혀진다. 그러나 靑華白磁에선 軟質胎土나 乳白色의 釉를 입힌 例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鐵繪白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硬質胎土에 乳白色 釉를 입힌 例들이 있어 注目된다.

(6) 以上の 內容을 정리하면, 靑磁의 主要 要素와 元・明初期陶磁 要素를 對比한 靑靑과 象嵌白磁가 형성하는 群, 그리고 전적으로 元・明初期陶磁에 基인한 靑華白磁가 이루는 群으로 區別되며 이 兩群에 각각 포함되는 中間의 物이 鐵繪白磁이다.

(7) 以上の 點들로 미루어 볼 때, 靑靑은 고려靑磁에서 조선白磁로 陶磁樣相이 바뀌는 그 가운데 존재하는 過渡期的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우선 釉胎에 있어서 前述한 바와 같이 靑磁보다는 鐵分을 포함한 雜物의 含量이 줄어들어 胎土는 灰白色이고 釉色은 투명한 帶淡靑灰色이지만, 白色主調의 白磁에는 미치지 못함으로 입증될 수 있고, 또 朝鮮前期의 象嵌白磁에 靑靑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서 白磁主流로 이행해가는 초기단계와 겹쳐지는 部分을 갖는 靑靑의 位置로도 그 過渡期的인 모습을 發見할 수 있다.

(8) 따라서 壬亂前까지의 朝鮮前期는 고려陶磁의 脈이 계속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中國陶磁의 影響이 流入되는 가운데 매우 韓國的인 陶磁樣式이 成立되는 복잡한 時期이다. 이 當時의 白磁가 靑靑의 강한 影響권 內에 있었음이 注目된다.

(9) 中國陶磁와의 關係에 있어서 器形, 장식意匠, 銘文 등에 元後半期~明初期陶磁의 影響이 感知되며, 특히 麗末 象嵌靑磁서부터 나타

난 元陶磁와의 關係가 더욱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註〉

①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서훈 1982 p. 149, 150, 173

②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世界陶磁全集 第十八卷 高麗 小學館 東京 1978 p. 227

伊藤郁太郎 『安宅コレクション 東洋陶磁名品圖錄』 李朝 日本經濟新聞社 東京 1980 p. 4

③ 新安出土의 元代 靑磁들을 보면, 釉藥은 鐵分이 함유된 푸르른 靑磁釉이지만, 素地는 白磁의 素地와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의 雪白色을 띠고 있음이 看取된다. 이로써 보면, 素地에서부터 白磁化로의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물론 初期나 末期의 靑靑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靑靑고유의 淡靑色을 띤 釉는 아니지만, 이러한 境況은 靑磁나 白磁를 포함한 어느 陶磁器에서나 發生期와 衰退期에 나타나는 現象이므로 高유의 發色으로 볼 수는 없다. 靑靑 全盛期の 釉色은 대부분이 灰色내지는 靑色을 약간 머금은 투명유약으로 中央공공용의 上品靑靑에선 더욱 뚜렷이 살필 수 있다.

⑤ 鄭良謨, 『李朝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第十九卷 李朝 小學館 東京 1980, pp. 142~144

拙稿 『朝鮮朝 印花靑靑의 編年的 考察』 『光州 全谷里窯出土品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0, pp. 91~92

⑥ Margaret Medley 『Yuan Porcelain and Stoneware』 Faber and Faber London 1974 pp. 109~110

⑦ 三上次男 『渤海・遼・金の 陶磁器生産とその 歴史的 背景』 『世界陶磁全集』 第十三卷 小學館 東京 1981 p. 140

⑧ Margaret Medley Ibid. p. 111

⑨ Yutaka Mino, 『Freedom of Clay and Brush through Seven Centuries in Northern China Tz'u-Chou Type Wares, 960—1600 A.D.』 Indianapolis Museum of Art, 1980, pp. 9~10

⑩ Margaret Medley ibid. p. 110

磁州窯의 白土粉粧의 대해 M.M.이,

① It acted as a filler if the body were coarse,

② It concealed the dismal greyish or brownish body

③ It provided an admirable smooth white surface eminently suitable as a ground for a wide range of visually satisfying decorations carried out in a variety of ways...

라고 그의 도를 설명하였다. 이에 粉靑에서는 한가지가 더 추가되는바, 靑磁의 象嵌技法의 衰退에 기인한 간략화현상으로서 押印한 문양에 쉽게 白土를 넣기 위한 하나의 方法인 것이다.

⑪ 出光美術館『近年發見の窯址出土中國陶磁展』(1949—1981) 1982 河北省 河北省磁州窯참조

⑫ 磁州窯鐵繪文의 例로서 元의 「至正十三年」銘壺(1353)(圖 57)와 明의 「隆慶伍年」銘壺(1571)(圖 58)의 文樣變遷을 살펴보면, 鳥文(鶴文)의 變形이라고 생각되는 抽象化·圖式化된 文樣은 兩者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 인 경향이지만, 前者는 굵은 線으로 지칠고 輻달하게 施文한데 비해 後者는 가늘고 세련된 線으로 보다 장식적인 表現을 하였다. 보조문양으로 波狀文 이 보이는데 「至正」銘에선 넓은 文樣帶에 굵은 線으로 커다란 曲線을 그리 던 것이 「隆慶」銘에선 가는 線의 작은 波狀文이 2段의 좁은 文樣席에 각각 施文되어 主文樣과 마찬가지로 輻진 정리된 모습이다. 또 다른 在銘遺 品인 「正統拾壹年」銘壺(1446) 『磁州窯』陶磁大系 39, 平凡社 p.124 挿圖 65에서도 그렇듯이 明代의 磁州窯陶磁에는 靑華白磁의 장식意匠要素 가 점차 깊어 가미되어 더욱 섬세해지고 장식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한 樣式 화된 文樣과 構圖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⑬ 소위 「玉壺春」瓶은 中國과 日本에서 사용하는 名稱인데, 이러한 기형은 中國에선 明初에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半世紀쯤 늦은 鮮初(15世紀 頃)에 盛行하였다.

⑭ 本稿 p.5

⑮ 『李朝陶磁』粉靑沙器篇 中央日報「季刊美術」1979 圖92 東垣기증. 國 博 소장 粉靑沙器剝地蓮花文扁瓶

⑯ 本稿 p.5에서 樣式分類한 中國 元·明初陶磁의 영향을 시사하는 유행동작 있는 兎耳문(唐草文)은 차차 粉靑만의 독특한 樣式으로 變貌하여 粉靑象

嵌文, 剝地文, 彫花文, 鐵繪文 등에 계속 나타난다. 즉, 다소 圖案意匠化 되었지만 생동감있는 筆致를 보여주는 例와 완전히 抽象化된 例들이 있는 바, 梨大博物館소장의 粉靑彫花蓮花文扁瓶(李朝陶磁 中央日報 圖91), 國 博소장의 粉靑彫花蓮唐草文壺(前掲書 圖98), 그리고 粉靑剝地蓮唐草文壺 (前掲書 圖97)

⑰ 山田萬吉郎『三島刷毛目』寶雲舎 東京 1943 pp.45~48

山田氏의 粉靑發生·發展에 관한 理論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관해선 拙稿「朝鮮朝 印花靑靑의 編年的 考察」서울大學校大學 院碩士學位論文 1980 pp.75~78

⑱ 初期의 靑華白磁牧丹唐草文壺(日本)에 나타난 牧丹唐草文은 明初 洪武年 間(14世紀後半)의 靑華白磁菊花文盤 內側面의 唐草文一部와 同一한 樣式 을 보여준다. 구도면에서도 매우 樣式化된 元·明初의 陶磁에 흡사하지만 다소 生動感있는 筆力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가 점차 素材, 構圖가 전혀 韓國的인 것으로 바뀌어 梅花, 松, 竹 등의 문양이 공간을 채우기 위한 목 적으로 보다는 繪書性을 추구한 配置로서 여백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⑲ 尹龍二「鶴龍山麓陶窯址調査」박물관 신문서술 1977.6.

이 調査에 의하면, 鶴峰里의 沙器所陶窯址에서 鐵繪粉靑과 初期의 鐵繪白 磁의 陶片이 發見되었고 孔岩里窯址에서도 粉靑과 鐵繪白磁片이 蒐集되었 다 한다. 이러한 사실은 粉靑鐵繪文의 樣式이 白磁鐵繪文에 영향을 주었 음을 확인케 해준다.

⑳ 여기서 粉靑의 側面에서 白磁를 좀더 고찰 정리해 보면,

① 象嵌白磁는 가장 粉靑의인 要素를 지니며, 粉靑의 문양을 간단히 一部 만을 배서 施文하였고, 一部 中國陶磁의 意匠要素를 지닌 例도 있지만 대다수가 粉靑과 유사한 기형을 지닌다.

② 靑華白磁는 초기엔 완전히 中國의인 意匠을 갖추었으나 점차 繪畫의· 韓國의인 文樣이 등장하고 이러한 韓國化의 영향은 器形에 있어서도 同 하나게 나타난다. 그리고 一部의 壺에 粉靑과 유사한 기형이 發見된다.

③ 鐵繪白磁는 기형·문양에 있어 粉靑이나 象嵌白磁 그리고 靑華白磁 의 특징을 갖춘 例가 고루 나타나고 있어 混合類型을 이루고 있다.

㉑ 本稿 pp.3



圖 1) 粉青象嵌蓮花文瓶 (湖巖美術館)



圖 2) 粉青剔地鐵彩牡丹文瓶 (日本安宅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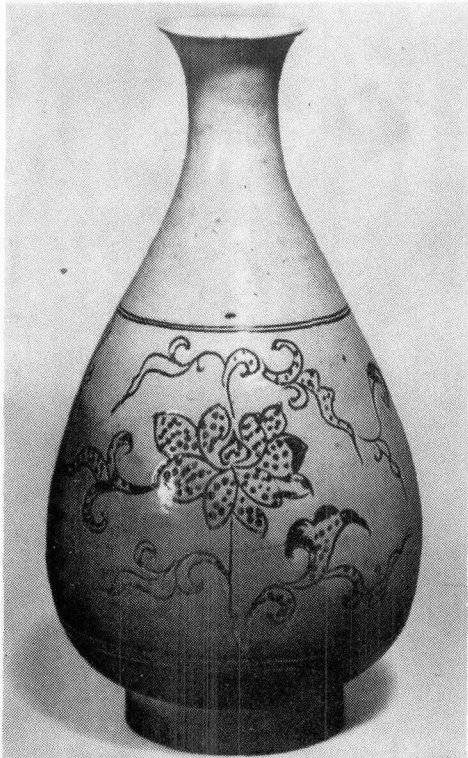


圖 3) 白磁象嵌蓮花文瓶 (日本安宅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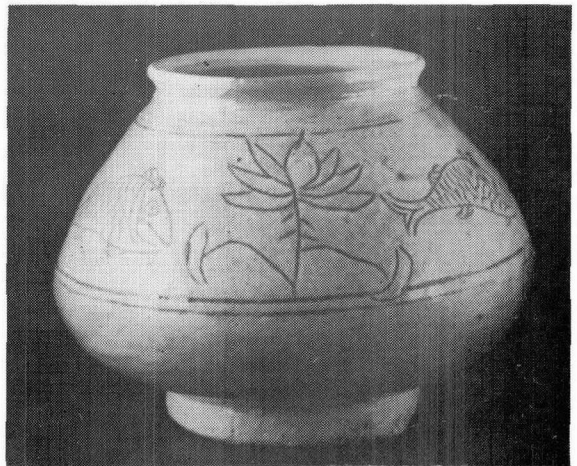


圖 4) 白磁象嵌蓮魚文壺 (南宮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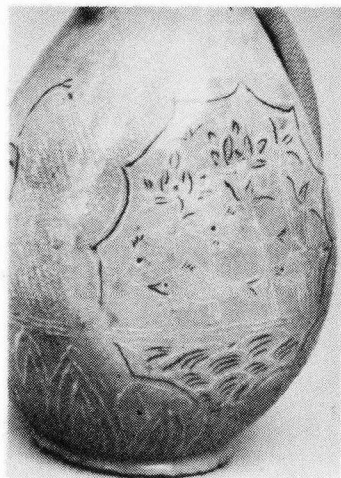


圖5) 粉青象嵌蓮魚文扁瓶(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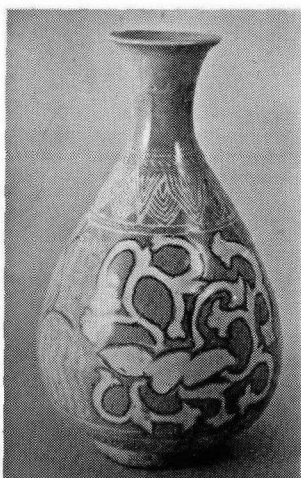


圖6) 粉青象嵌牡丹楊柳文瓶(尹章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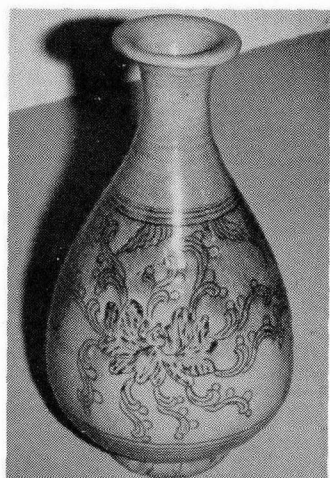


圖7) 白磁象嵌蓮花文瓶(湖巖美術館)



圖8) 青磁陽刻牡丹唐草文瓶 國立中央博物館



圖9) 青磁象嵌辰砂蓮唐草文瓶 日本安宅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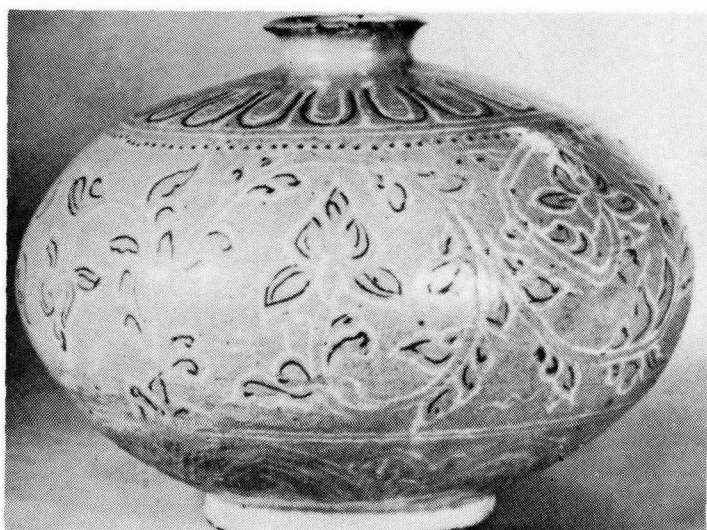


圖10) 青磁象嵌蓮唐草文瓶



圖11) 粉青剝地鐵彩牡丹唐草文瓶 (日本安宅 Collection)



圖 12 粉青象嵌蓮唐草文梅瓶(嶺南大學校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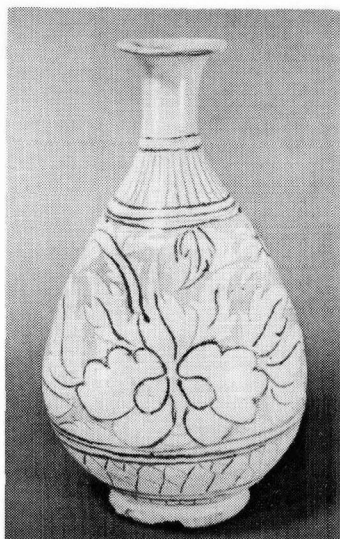


圖 13 粉青剔地鐵繪牡丹唐草文瓶(國立中央博物館)



圖 14) 粉青彫花蓮唐草文壺(國立中央博物館)



圖 15) 粉青彫花蓮唐草文壺(日本)



圖 16) 粉青鐵繪蓮唐草文瓶(澗松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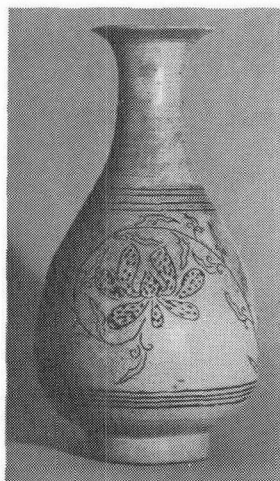


圖 17) 白磁象嵌蓮唐草文瓶(釜山市立博物館)



圖 18) 白磁象嵌蓮唐草文瓶(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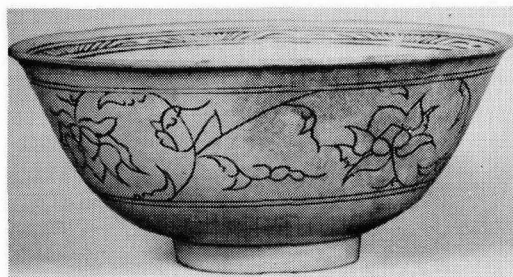


圖 19) 白磁象嵌蓮唐草文대접  
(國立中央博物館(東垣기증))



圖 20) 白磁象嵌蓮唐草文대접  
(國立中央博物館(東垣기증))



圖 21) 白磁象嵌蓮唐草文瓶(湖巖美術館)



圖 22) 青華白磁蓮唐草文접시(部分)(出光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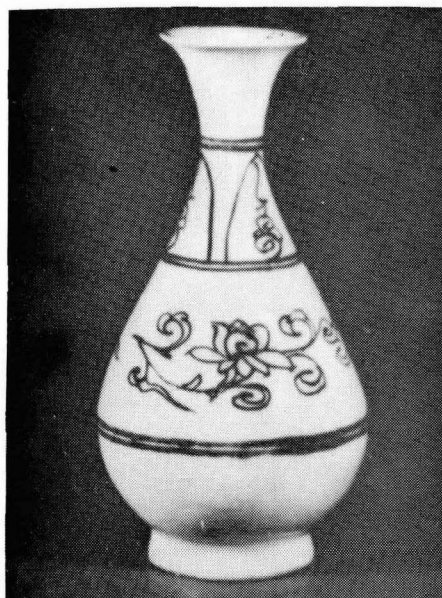


圖 23) 釉裏紅蓮花文瓶(Metropolitan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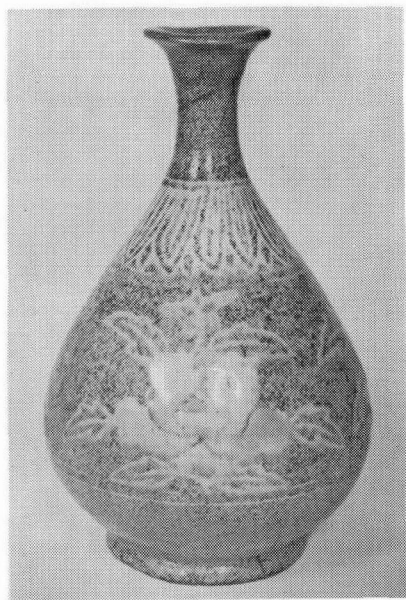


圖 24) 粉青象嵌牡丹文吹鐵砂瓶  
(澗松美術館)



圖 25) 白磁象嵌蓮花文壺 (國立中央博物館)



圖 26) 白磁象嵌蓮花文大접  
(國立中央博物館 (東垣기증))



圖 27) 白磁象嵌蓮花文大접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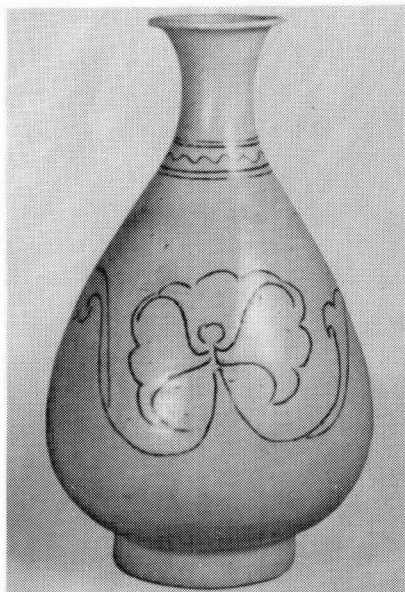


圖 28) 白磁象嵌牡丹文瓶 (尹章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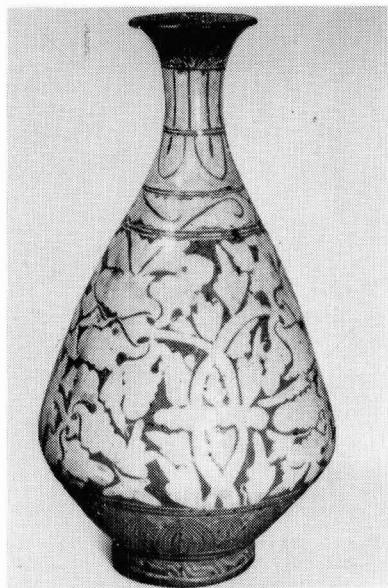


圖 29) 粉青象嵌牡丹唐草文瓶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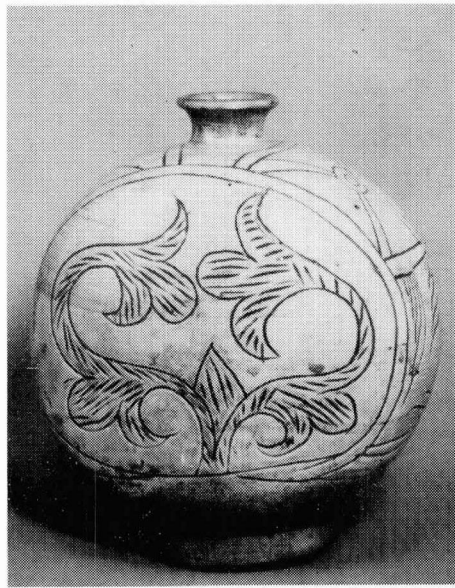


圖 30) 粉青彫花唐草文扁瓶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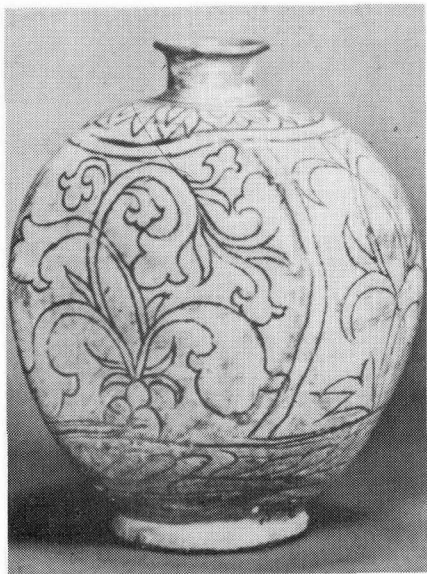


圖 31) 白青彫花唐草文扁瓶(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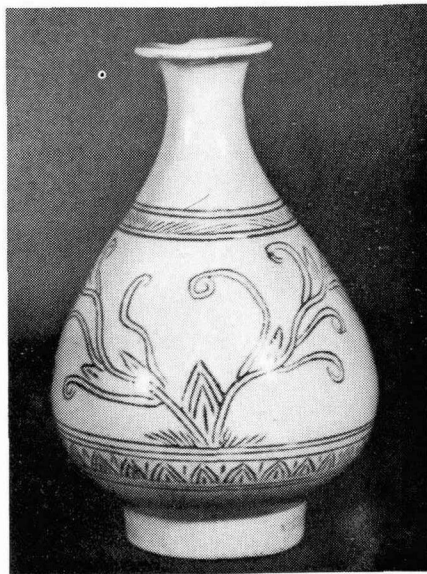


圖 32) 白磁象嵌唐草文瓶(國立中央博物館(東垣기증))



圖 33) 白磁象嵌草文「太一殿」銘托蓋(國立中央博物館(東垣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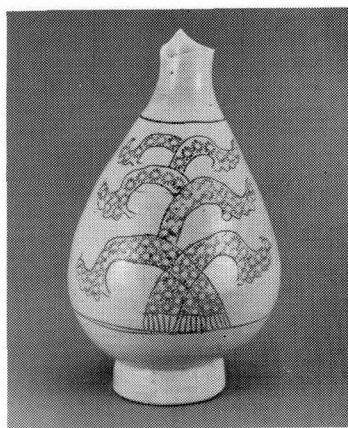


圖 34) 白磁象嵌樹枝文瓶(國立中央博物館(東垣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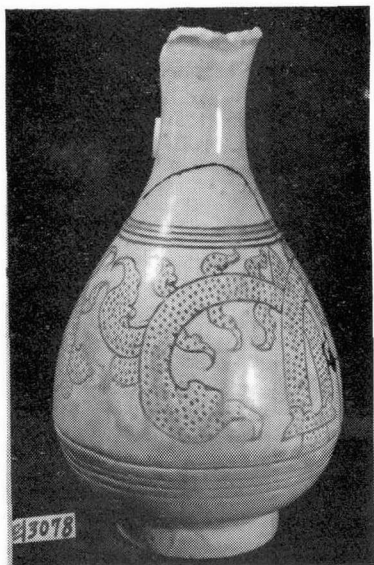


圖 35) 白磁象嵌樹枝文瓶(國立中央博物館)



圖 36) 白磁象嵌牡丹唐草文扁瓶(湖巖美術館)



圖37) 粉青剝地牡丹文鐵彩자라瓶 (國立中央博物館)



圖38) 白磁鐵彩剝地七寶文대접 (湖巖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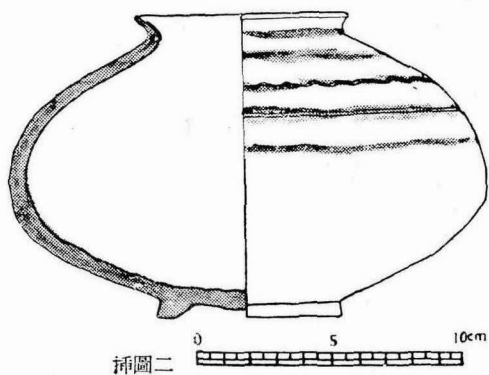


圖39) 溫寧君墓出土粉青壺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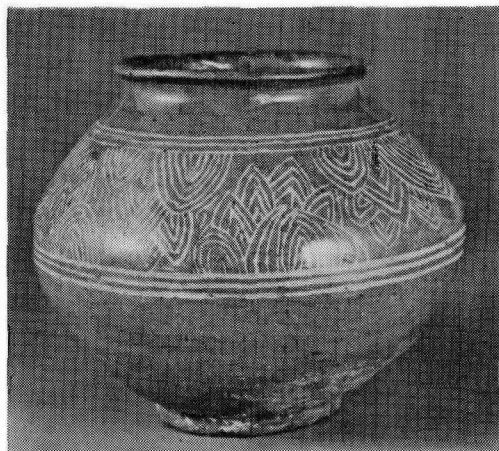


圖40) 粉青象嵌蓮瓣文壺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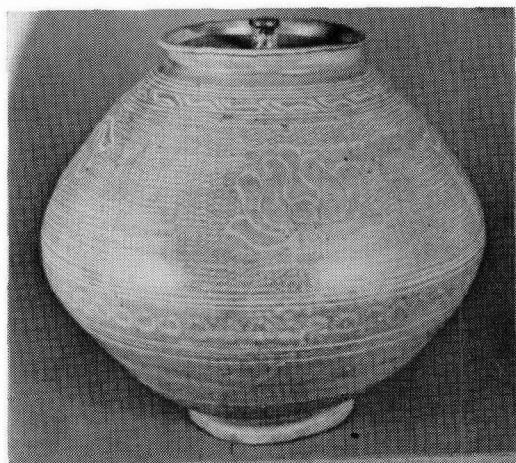


圖41) 粉青印花·象嵌蓮花文壺 (國立中央博物館)



圖42) 白磁象嵌繩簾文壺 (國立中央博物館)



圖 43) 粉青鐵繪草文壺 (國立中央博物館)



圖 44) 白磁鐵繪草文壺 (日本安宅 Collection)



圖 45) 粉青象嵌牡丹唐草文盒 (澗松美術館)



圖 46) 粉青鐵繪牡丹文장군 (日本)



圖 47) 粉青鐵繪唐草文壺 (林金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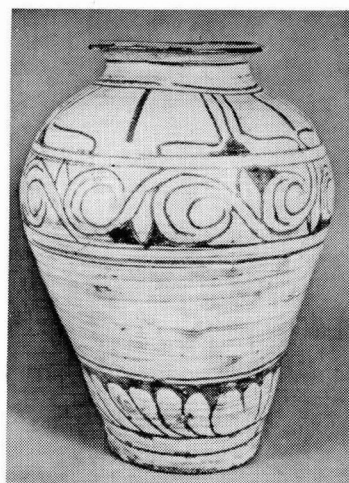


圖 48) 粉青彫花剔地唐草文壺 (國立中央博物館)



圖 49) 粉青剔地牡丹文자라瓶 (閔丙燾)



圖 50) 白磁象嵌草文자라瓶 (國立中央博物館)



圖 51) 粉青彫花草文扁瓶 (國立中央博物館)



圖 52) 白磁象嵌草文扁瓶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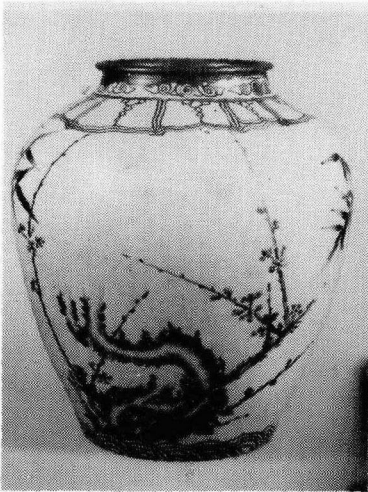


圖 53) 白磁鐵繪梅竹文壺 (國立中央博物館)



圖 54) 白磁鐵繪草文대접 (個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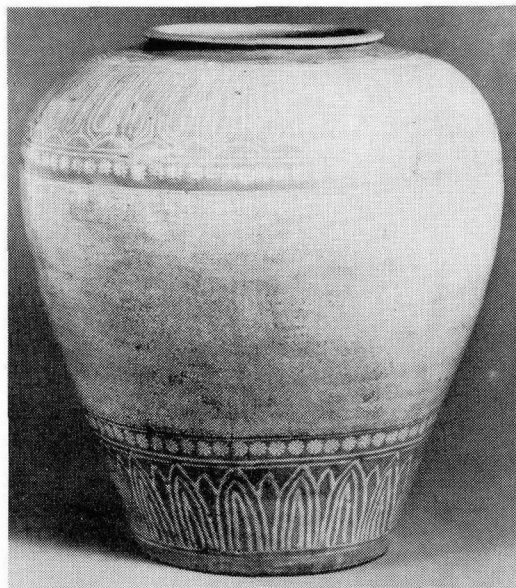


圖 55) 月山君粉青印花文胎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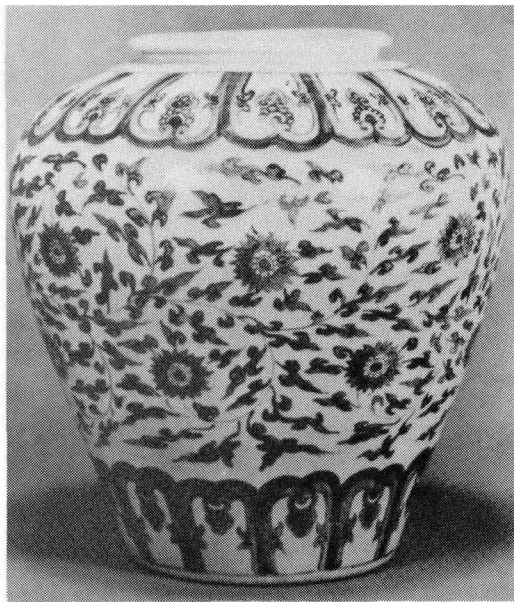


圖 56) 青華白磁唐草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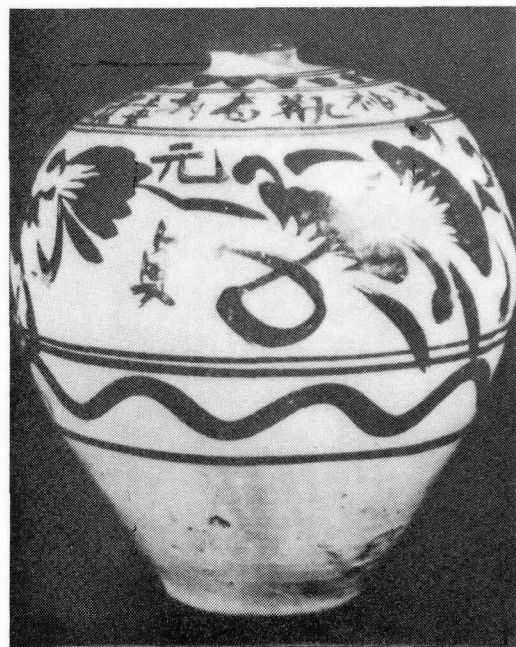


圖 57) 「至正十三年」銘白地鐵繪草花文壺  
(Buffalo Museum of natural Science)



圖 58) 「隆慶伍年」銘白地鐵繪草花文壺  
(Royal Ontario 美術館)